

브라질 BNDES 향후 투자 계획

(2014. 12. 9)

상파울루사무소

- 브라질 국책개발은행(BNDES)은 12월 初 향후 지우마(Dilma) 대통령 제2기 집권기간(2015~2018년) 동안 R\$4.1조(U\$1.6조 상당)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발표
 - 동 투자계획은 지우마정부 1기(2010~2013) 투자계획보다 17.1% 증가한 규모
- BNDES는 인프라개발에 R\$5,980억(U\$2,300억 상당)을 배정했으며, 이는 지우마 1기 투자계획보다 31% 증가하고 GDP의 2.6%를 수준임을 강조
 - 인프라개발 중 가장 규모가 큰 섹터는 전력 확충부문(R\$1,920억)이며, 철도개발에 이전 기간 대비 98.8% 증가한 R\$450억, 도로개발에 R\$800억을 배정

섹터별 투자 계획

(R\$억)

부 문	2010~2013	2015~2018(계획)	증가율(%)
인프라개발	4,570	5,980	30.8
산업지원	7,670	9,090	18.5
주택건설	8,100	9,630	19.0
농산물/서비스	14,690	16,310	11.0
총계	35,020	41,010	17.1

자료 : BNDES

- BNDES의 산업별 투자계획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**오일/가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강화**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하락과 자국내 철강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**제철 산업에 대한 투자규모를 축소**한 것임.

산업별 투자 계획

(R\$억)

부문	2010-2013	2015-2018(계획)	증가율(%)
오일/가스	3,580	5,090	42.1
미네랄	440	400	△ 8.0
자동차	580	590	0.4
제지	200	210	2.5
화학산업	220	220	2.6
제철	200	120	△ 38.5
전자 분야	220	280	25.9
헬스케어 분야	80	130	57.0
우주항공	40	120	187.0
식음료	580	490	△ 15.8
사탕수수 산업	410	250	△ 40.5
기타 산업	1,120	1,210	8.0
총 계	7,670	9,090	18.5

자료 : BNDES

- 금번 BNDES의 투자계획에는 투자규모의 증가뿐만 아니라 특정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 중점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음.
- 특히 오일가스 부문에서는 심해탐사,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(태양광과 풍력)에 대한 투자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.